

M&A 흑역사로 기록될 아시아나 딜... 노딜 후 법정예

정부, 이번주 경영정상화 논의
계약 해지통보, 플랜B 등 보고
기안기금 투입 여부도 최종 결정

2500억 이행보증금 소송전 전망
채권단 체제 속 재매각 추진할 듯



아시아나 A330 항공기.

9개월 넘게 진행된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결론이 이번 주 후반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는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정부의 산업경쟁력 강화장관회의 이후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계약 해지 통보,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아시아나항공 지원 결정 등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매도자인 금호산업은 매수자인 현산에 이번 주 중 M&A(인수·합병) 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의 플랜B 보고가 이뤄지며, 금호산업의 계약 해지 통보도 이때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이번 주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가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11일에 회의가 잠정적으로 잡혔다"고 말했다.

M&A가 최종 무산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관리 체제로 넘어간다. 또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시아나항공에 기안기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주 금요일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안기금 운용 심의회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기안기금 투입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지난해와 올해 아시아나항공에 모두 3조3000억원을 지원했다. 현재 3조원(구조조정 운영자금 2조2000억원·영구채 인수 8000억원)이 집행돼 남은 잔액은 3000억원이다.

현재 채권단의 인수 부담 경감 제안을 HDC현산이 받아들이지 않고 '12주 재실사'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선언만 남겨놓은 상태다.

인수가 무산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관리 체제에 놓이게 된다.

채권단은 일단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에 힘을 쏟은 뒤 시장 여건이 좋아지면 재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와 따로 매각하는 '분

리매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주항공이 지난 7월 23일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를 선언한 데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M&A도 사실상 무산되면서 항공업계의 구조개편은 불가피해졌다.

한편 현산의 M&A가 최종 무산되면 2500억원에 달하는 이행보증금을 둘러싼 소송도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현산과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총 2조 5000억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금호산업 및 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인수대금의 10%를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이 최대주주가 돼서 관리한 경영 정상화 시켜 놓은 뒤 재매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형평성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안기금 투입 규모를 놓고 정부와 채권단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우수기업 규제 면제... 'R&D 샌드박스' 도입

산업부 R&D 혁신방안

심 시스템 시장 중심으로 개편
기술혁신펀드 3년간 5000억 조성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우수 기업에 규제를 일괄 면제해주는 'R&D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산·학·연 전문가와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 R&D 규모는 지속 증가했으나, 관성적이고 통제·관리 위주의 연구개발 제도 탓에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기존 경직된 정부 R&D 추진 방식에도 대대적 변화가 요구된다.

산업부 R&D 규모는 2019년 3조 4000억원에서 2020년 4조2000억원, 내년(정부안)엔 4조90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하지만, 정부 R&D 투입 10억원당 누적 매출발생액은 약 16억원으로 경제성이 매우 낮고, 기술이전 성과도 11%에 불과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정부 R&D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고, 초 불확실성 시대의 산업화

실질적으로 제한돼 당초 연구계획의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정부 R&D 사업의 민간부담비율도 유연하게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산업연관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별·과제별로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감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R&D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기존 성공 또는 실패 관점의 평가를 없애고, 정성적 평가방식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연구성과의 질에 따라 우수, 완료, 불성실수행 등 3단계로 평가방식이 바뀐다.

정부 출연방식 위주의 정부 R&D와 달리, 민간 투자방식으로 기업 R&D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펀드를 연내 16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한다.

성윤모 장관은 "지금 우리산업은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전례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이라며 "산업 R&D가 기업들이 위기를 헤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



민중노총 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 9월 실업대란 1호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운반·탑재 ACS 노동자 대량해고 및 폐업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직장인 "추석 경비, 차례상 대신 선물에"

>> 1면 '낮선 언택트 한가위'서 계속

달라진 명절 풍경을 반영하듯 동원홈푸드 온라인 장보기 마켓 '더반찬&'의 8월 말부터 일일 주문량은 이전보다 약 38% 증가했다. 동원홈푸드 관계자는 "올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주문량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차례상을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기획된 더반찬&의 "프리미엄 차례상"은 올 추석 준비 물량에 예년보다 50% 늘어났다.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등 언택트를 강조하는 호텔 업계에서도 프리미엄 추석 차례상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 유통가는 HMR(가정간편식) 선물세트를 보다 다양하게 준비했다. CJ더마켓 측은 "기존에 상은 제품 위주로 선물세트를 꾸린 것과 달리 이번 추석에는 냉동과 냉장 제품으로 구성된 세트를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프리미엄 차례상 및 달라진 추석 선물세트가 예년보다 고가인 편이지만 구

매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 8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추석 연휴 계획과 예상비용'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추석 예상경비 주요 사용처에 명절음식준비 비용이 3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관이 조사한 차례 상차림 예상비용(교통비 포함)이 총 경비 중 23.0%에 해당한 것에 비하면 눈에 띄게 달라진 수치다. 직접 고향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선물을 전달하거나, 차례상을 차리는 대신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며 '정성'을 표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가까운 거리면 코로나 사태와 상관없이 대면 소비를 할 텐데,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위험성이 커져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게 됐다"면서 "현재 채소·과일 등 생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 있으므로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상차림 구매를 하는 편"이라고 분석했다.

/조효정·원은미 기자 princess@

수주액 10분의 1 뚝... 해외 수주 '빨간불'

(9월1~6일)

>> 1면 '건설업계, 코로나'서 계속

◆해외수주 급감

해외 신규 수주 감소도 심각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건설 신규 수주물량이 급격히 줄고 있다. 특히 해외수주 텃밭인 중동과 아시아 지역의 공사 발주량이 크게 줄고 있다.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해외 수주액은 ▲1월 56억4554만 달러 ▲2월 37억2232만 달러 ▲3월 18억2989만 달러 ▲4월 17억9018만 달러 ▲5월 18억2597만 달러 ▲6월 13억2495만 달러 ▲7월 6억5407달러 ▲8월 10억4116억 달러다.

9월(1~6일)에 들어서는 해외 수주액 1698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인 1억 1853달러의 10분의1에 불과하다.

한편 각 건설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재택근무 혹은 격일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SK건설은 현재 본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본사 모든 직원이 재택근무로 전환한 것은 건설사들 가운데 SK건설이 처음이다. 또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은 2교대로 재택근무를 시작했고, GS건설은 직원 전체가 격일 출근을 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순환 재택근무제로 2주간 시행돼 본사 근무 인원은 50%에 머물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